

해상실크로드와 중국 제3세계론의 유산: 냉전의 관점에서 보는 시하누크빌

백지운(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국민대 중국연구소 발제문, 2020.5.29

1. 시하누크빌의 중국 경제특구

도시는 지금 거대한 재건 중이다. 곳곳에 고층 건물들이 올라서고 있다. 위즈니 월드(?)도 곧 생길 것이다. 100대 이상의 크레인이 이곳에서 연중 무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오토리스(Otres) 해변은 크레인이 가장 많이 운집해 있지만 대부분 한 곳에 모여 있어 그래도 휴양 공간이 좀 남아있다. 75개의 카지노가 영업 중이거나 곧 문을 열 예정이다. 수십 개가 더 건설 중이다. 섬들은 발전하고 있지만 속도는 느리다. 아직 몇 개 지역과 섬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롭다. 도시는 시하누크빌 국제공항까지 확장될 것이다. 수도, 하수도, 전기, 위생, 포장도로 시설이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그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2020년대가 되면 도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아마도.¹⁾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시하누크빌의 관광 홍보 사이트에 실린 한 구절이다. 수도 프놈펜에서 동남부 태국만을 향해 국도 4번을 따라 24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의 유일한 심해항이자 국제항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두 대국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놓인 캄보디아에게 시하누크빌은 프놈펜과 바다를 연결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역사적으로 그 지정학 및 지정학적 가치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현재 시하누크빌은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 9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 시하누크빌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는 도시라고 하기도 뭇한 한적한 마을이었다. 4.6킬로의 긴 백사장을 자랑하는 오토레스(Otres) 해변을 비롯한 여덟 개의 해변과 여덟 개의 외도를 거느린 이곳은 휴양지로서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녔지만 걸맞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탓에 그저 주머니가 가벼운 배낭여행객들의 낭만적인 휴식처일 뿐이었다. 그런 이 곳을 현재 100대가 넘는 크레인이 땅을 뒤엎고 있다. 1차선으로 된 국도는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수백 대의 트럭들에 의해 점령당했고, 공사장에서 쏟아지는 흙먼지와 쓰레기에 밀려 종래의 여행객은 떠나가고 그 자리를 신 여행객(중국인)이 채우고 있다. 인용한 관광 홍보 사이트의 말처럼 5년 안에 시하누크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시하누크빌의 변화를 이끄는 “그들”은 바로 중국이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상호 협력안에 조인한 최초이자 유일한 경제특구이다(Sihanoukville Special Economic Zone, SSEZ). 2017년 말 이래 중국은 ‘일대일로’ 20여개 연선국에 56개의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²⁾ 그런데 시하누크빌경제특구(이하, SSEZ)가 확정된 것은 이보다

1) sihanoukville-combodia.com (2019.3월 10일 검색)

2) 아세안 지역에 중국인 투자로 설립된 경제특구는 다섯 개가 있다. 중국-인도네시아 주룽 농업경제협력 지구, 라오스 사이세타 개발 지구,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특별경제지구, 태국-중국 라용 산업단지,

10여 년 앞선 2006년이였다. 중국의 해외 경제특구는 1994년 이집트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수에즈에 세운 것이 최초였다. 2001년 WTO에 가입하고 5개년 발전계획을 공표한 것을 기점으로 중국의 해외 경제특구 건설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당시 후 진타오 정부는 열 개 정도의 특구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2006년 해외경제특구 입찰에 60여 개의 중국 기업이 몰려들었고 이듬해 두 번째 입찰에도 50여개 기업이 지원했다. 결국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입찰을 통해 중국은 19개의 해외경제특구를 선정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하누크빌이었다.³⁾ SSEZ의 개발권을 따낸 것은 장수성의 홍더우(Hongdou), 광밍(Guangming), 이두어(Yiduo), 화타이(Huatai) 그룹이었다. 태국만에서 수도 프놈펜으로 가는 4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SSEZ는 캄보디아의 유일한 심해이자 국가 전체 물동량의 70퍼센트를 담당하는 시하누크 항만(Sihanouk Autonomous Port)과 캄보디아 제3국제공항인 시하누크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놓여 있다. SSEZ의 제1투자자인 홍더우 그룹은 시하누크빌을 섬유와 의류, 하드웨어, 가전제품으로 특화된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섬유와 가전 분야 100여 개의 기업이 진출했으며, 단지가 완성되는 2020년까지 300개의 기업을 유치할 전망이다.⁴⁾



<그림1> SSEZ 이미지
(출처
<http://www.ssez.com/en/company.asp?lone=3>)

좁고 노후한 4번 국도를 대신하여 시하누크빌과 프놈펜을 한결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새 고속도로 건설도 중국이 맡았다. 기존 240킬로미터의 거리를 190킬로미터로 단축하는 4차선 고속도로가 2019년 3월 말 준공하여 4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고속도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부하에 걸린 4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여 시하누크 국제항과 SSEZ 그리고 프놈펜으로 이동하는 물동량을 신속하게 연결할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 교통건설(Chinese Communication Construction Company Ltd)이 맡았으며 예상비용은 20억 달러이다.⁵⁾

자본과 함께 사람도 밀려오고 있다. 2016-2017년 2년 간 인구 9만의 도시 시하누크빌을

베트남 룡장 산업단지. “Belt and Road: Development of China’s Overseas Economic Trade Co-operation Zones (1),” *HKDC Research*, 19 June 2017, p. 4.

3) 2012년 중순 그 중 네 개의 특구(알제리, 멕시코, 베네주엘라, 쾰른 뢰르부르크) 계획 등이 철회되었다. Deborah Bräutigam and Tang Xiaoyang, “Economic Statecraft in China’s New Overseas Special Economic Zones: Soft Power, Business or Resource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88:4, 2012, pp. 800-805; Deborah Bräutigam and Xiaoyang Tang, ““Going Global in Groups”: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Overseas,” *World Development*, vol. 63, 2013, pp. 78-91.

4) “Belt and Road: Development of China’s Overseas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s (3): Special Economic Zone in Sihanoukville, Cambodia,” *HKDC Research*, June 26, 2017, p. 3.

5) “Sihanoukville Expressway Nears Construction,” *Khmer Times*, January 11, 2019.

방문한 중국인은 12만 명이다. 시하누크빌에 투자된 외자 1.3억 달러 중 1.1억 달러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도심과 해변에 즐비한 카지노와 콘도의 소유주는 대부분 중국인이며 SSEZ에 입주한 기업들 역시 대부분 중국 기업이다.⁶⁾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은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목가적인 해변 뒤로 화려한 네온사인의 카지노와 콘도, 고급 아파트 단지 등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고 상가에는 크메리어와 중국어가 병행된 간판들이 늘어지기 시작했다. 『프놈펜포스트』가 2018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시하누크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중 중국인 관광객이 8만 5천 명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43퍼센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서양 관광객의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프놈펜포스트』는 시하누크빌 관광객의 중국인 편중 현상이 향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⁷⁾

이는 시하누크국제공항의 국제선 취항편만 봐도 명약관화하다. 현재 시하누크국제공항에는 마카오, 선전, 충칭, 광저우, 항저우, 난닝, 톈진, 시안, 지에양(揭陽), 쿤밍, 취안저우, 창사, 원저우, 푸저우, 청두, 우한 등 중국의 16개 도시로 향하는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중국을 제한 국제선 취항도시는 쿠알라룸푸르와 호치민씨티 두 곳밖에 없으니,⁸⁾ 그야말로 시하누크국제공항은 중국인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바다와 면한 광대한 면적의 국토를 지니고 있음에도 백사장을 갖춘 휴양지가 드물다. 맥킨지는 2022년까지 중국 중산층의 수가 5억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⁹⁾ 그렇다면 중국 동남부 주요 도시에서 비행기로 3시간 전후 거리에 있고 중국어가 제2외국어로 통용되는 시하누크빌이 수년 내 폭발하는 중국 중산층의 단골 휴양지가 될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시하누크빌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서구 언론의 다소 야단스런 우려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이다.

2. 해상실크로드와 부상하는 캄보디아의 지정/지경학

SSEZ 개발에 속도가 붙은 것은 ‘일대일로’의 한 축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이하 ‘해상실크로드’)의 추진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2013년 중국이 발표한 메가급 프로젝트 ‘일대일로’는 ‘육상실크로드’의 ‘6대회랑’과 ‘해상실크로드’의 ‘3대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설명은 국내의 과잉 생산과 잉여 자본을 낙후한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에 투여하여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평화발전’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의 심층에 근대 이래 육상권력(land power)에 대해 우위로 점해 온 해상권력(sea power)의 역관계를 전복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¹⁰⁾ 초창기 일대일로의 추진구상이

6) “‘No Cambodia Left’: how Chinese money is changing Sihanoukville,” *The Guardian*, July 31, 2018; “This Cambodian City is Turning into a Chinese Enclave, and Not Everyone is Happy,” *The Washington Post*, March 29, 2018.

7) “Chinese Influx Pushing Locals, Westerners out of Preah Sihanouk,” *The Phnom Penh Post*, September 18, 2018.

8) 시하누크국제공항의 중국 도시 취항편 대부분은 2018년에 개통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Sihanouk_International_Airport#cite_note-14.

9) “China’s Middle Class is Exploding,” *Business Insider*, August 27, 2016.

10) ‘일대일로’에 내포된 땅-바다의 지정학적 역관계에 대해서는 백지운, 「‘일대일로’와 제국의 지정학」 『역사비평』 2018년 봄호를 참조.

해상 노선에 비해 경제효과가 덜한 육상 노선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017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이 발표한 ‘일대일로해상협력구상’을 계기로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추진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해상 노선의 3대노선은 ‘중국-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 블루경제 통로’(서진 노선), ‘중국-태평양-남태평양 블루경제 통로’(남진 노선), ‘중국-북극해-유럽 블루경제 통로’(북진 노선)이다. 국가 무역량의 90%를 해운이 담당하는 중국으로서 ‘해상실크로드’의 경제협력 효과는 ‘육상실크로드’보다 훨씬 직접적이다.¹¹⁾ 3대노선 중 남진 노선과 북진 노선이 태평양 진출 통로와 북극항로 개발 입지의 확보라는 군사 안보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면, 인도양으로 향하는 서진 노선은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는 ‘해상실크로드’의 핵심이다.¹²⁾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은 라오스를 제하면 모두 해양 국가로서, 싱가포르, 마닐라, 자카르타, 하이퐁 등 대규모 항구를 포함한 13개의 항구 도시들이 이곳에 포진해 있다. 2002년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중국과 아세안은 2010년부터는 FTA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한중일의 10+3 기제에 더해 단독으로 10+1 기제를 가동하고 있을 만큼 아세안에 공을 들여왔다.¹³⁾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량은 7배 증가하여 2,3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10년 이래 지금까지 중국은 아세안의 제1위 교역상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¹⁴⁾ 또한 전세계 화교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천 2백만의 화교가 아세안에 분포되어 있고¹⁵⁾ 이들이 자국에서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중국과 아세안은 결코 서로 경원시할 수 없는 관계다.

그러나 경제 외적인 면에서 아세안은 중국에 결코 단순한 상대가 아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대표되는 아세안의 전통적인 강국들은 정치제도나 이념 면에서 서구에 기울어 있다. 거기에 아세안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과는 냉전시대부터 구원(舊怨)이 깊다. 1979년 발발한 중월전쟁은 1992년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 13년간 국지전으로 지속되었다. 2017년 양국이 ‘해상실크로드’의 일환으로 ‘양랑일권(兩廊一圏, Two Corridors and One Economic Ring)’ 협정에 조인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남중국해 갈등이 언제 다시 비화할지 알 수 없다. 수면 아래 잠겨 있는 중베 양국의 갈등은 단순히 영토 문제를 넘어 냉전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균열이라는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그 해결이 쉽지 않다.¹⁶⁾ 한국전쟁 종식 후 아시아 냉전(열전)의 축은 곧장 인도차이나로 이동했으며, 그로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인도차이나는 냉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쟁, 내전, 학살로 점철된 어두운 시기를 지나왔다. 중국은 그 잔혹한 현대사 내부 깊숙이 들어가 있다. 미국이 1973년 파리평화조약으로

11) 세계 10대 항구 중 7곳이 중국 항구이며 중국 자금이 들어간 항구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세계의 67%를 차지한다. 민귀식, 「중국 해상실크로드와 해양물류네트워크 구축 전략」 『중소연구』 제42권 제2호, 2018, 121-123쪽.

12) 민귀식, 같은 글, 122쪽.

13) 민귀식, 같은 글, 127쪽.

14) Pheakdey Heng, “Cambodia-China Relations: A Positive-Sum Game?,”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1:2, 2012, p.61.

15) 전세계 화교 인구 4천 3백만 명 중 아시아에 2천 9백만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아세안 국가에 2천 2백만이 집중되어 있다. Dudley L Poston Jr and Juyin Helen Wong, “The Chinese diaspora: The current distribution of the overseas Chinese population,” *Chinese Journal of Sociology*, Vol 2, No. 3, 2016, pp. 348-373; <http://factsanddetails.com/asian/cat66/sub418/item2729.html>.

16) 관련하여 백지운, 「독백과 망각의 전쟁 - 중월전쟁과 아시아 냉전의 역설성」 『중국현대문학』 85, 2018 참조.

수령과도 같은 인도차이나에서 마침내 발을 뺄 수 있었다면, 중국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인도차이나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사회주의 형제국인 베트남과 13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에 더해 캄보디아의 폴 포트(Pol Pot) 정권에 제공한 수십년에 걸친 원조는 미소 냉전과 아시아 사회주의 냉전이 복잡하게 뒤얽힌 아시아 냉전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준다. 중국은 인도차이나 문제의 내부자로서 풀어야 할 역사적 은원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해상실크로드’의 구동과 함께 아세안의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탈냉전 이래 냉랭했던 중국과 인도차이나의 관계가 다시 긴밀해지는 지금의 상황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캄보디아 역시 ‘해상실크로드’의 지도 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금 중국과 캄보디아는 냉전 시대 이래 최상의 밀월기를 보내고 있다. 1999년 아세안에 가입한 캄보디아는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중국’ 정책과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 2005년 제정)’을 지지하는 나라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캄보디아의 협조는 중국이 아세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적지 않은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자국으로 들어온 위구르 난민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등 중국의 신장 변경 문제에서도 UN과 미국의 비판에 맞서며 중국 편에 서고 있다. 인구 1,600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지리적으로 아세안의 정중앙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중심 교량일뿐 아니라 일본, 한국, 인도와 중국 간의 중개 교역 통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캄보디아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받는 일반관세제도(GSP) 덕분에 중국은 캄보디아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무관세로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가 보유한 4억 배럴의 크루드 오일과 3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그밖에 매장량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방대한 광물자원과 광대한 농업자원은 향후 중국이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중요한 배후 자원이다. 이미 1994년부터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460만 헥타르의 땅을 조차하여 광물, 수력 발전, 농업 등의 분야에 투자해 왔다.¹⁷⁾

그렇다면 캄보디아가 중국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1991년 ‘파리평화협정’ 조인으로 장기 내전상태의 종식을 선언한 캄보디아는 1993년 UN의 중재 아래 보통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정상국가의 출발을 알렸다. 이 선거에서 시하누크 전 국왕의 아들 노로돔 라나리드(Norodom Ranariddh)의 푼신펙(FUNCINPEC)과 훈센(Hun Sen: 1952~)이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의 연정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997년 훈센은 쿠데타를 일으켜 라나리드 왕자를 쫓아내고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그로부터, 더 정확하게는 캄푸치아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1979-1989)의 수상을 역임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35년에 이르는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¹⁸⁾ 훈센의 쿠데타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야기했다. 이는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제원조에 의존하는 캄보디아에게 큰

17) Touch Siphath, "Patterns of Chinese Assistance in Cambodia," Yos Santasombat ed., *Impact of China's Rise on the Mekong Reg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pp. 199-200; John F. Copper, *China's Foreign Aid and Investment Diplomacy, Volume II: History and Practice in Asia, 1950-Pres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p. 21.

18) 1975년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입성했을 때 훈센은 베트남 국경지대를 지키는 21지구 연대의 장교였다. 1977년 그는 자신이 속한 동부지구의 숙청을 피해 베트남으로 투항했다. 훈센의 잠재력을 간파한 베트남 지도부는 그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 1979년 훈센은 캄보디아로 진군하는 베트남 점령군의 선두에 섰다. 그는 베트남의 괴뢰정부 캄푸치아인민공화국에서 빠른 승진 가도를 달렸다. 1981년 부수상에 올랐으며 1984년 서른셋의 나이에 수상 직무대리를 거쳐 1985년 수상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Sebastian Strangio, *Hun Sen's Cambodi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4) pp. 23-34.

타격이었다. 그때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훈센 정권을 승인하고 막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간의 강력한 밀월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¹⁹⁾

1999년 훈센은 첫 중국 순방에서 1,830만 달러의 원조와 2억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약속받았다. 이는 중국이 이제껏 전세계 어느 나라에 제공한 원조의 액수를 훨씬 웃도는 액수이다.²⁰⁾ 현재 중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원조국이자 투자국이다.²¹⁾ 캄보디아 공공교통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토의 동서를 잇는 프놈펜-시하누크빌 노선과 남북을 잇는 캄퐁 참-시엠 립 노선을 비롯하여 캄보디아의 주요 고속도로와 교량의 70%가 중국의 자본으로 건설되고 있다.²²⁾ 연 7%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캄보디아에게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는 장기간 내전과 빈곤에 시달려온 캄보디아의 도약에 중대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3. 시하누크빌에 각인된 냉전

시하누크빌에 집중되는 중국 자본의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시하누크’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전조가 있는지 모른다. 시하누크빌의 원래 이름은 캄퐁 솜(Kampong Som)이다.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 1953-1970) 시대, ‘캄보디아의 아버지’로 국민적 추앙을 받았던 국왕 노도롬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1922-2012)의 이름을 따서 시하누크빌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론롤(Lon Nol) 정부가 집권한 크메르공화국(Khmer Republic: 1970-1975), 폴 포트가 세운 캄푸차민주국(Democratic Kampuchea: 1975-1979) 시기를 가치며 다시 캄퐁 솜이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시하누크빌이 되었다.

시하누크빌의 이름이 이처럼 정권의 부침에 따라 바뀌었던 것은 노도롬 시하누크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프랑스 보호령 시기 국왕이었던 시하누크는 독립 후 왕위를 부친에게 양위하고 정치활동에 뛰어들었다. 1955년 그는 정치조직 상쿰(Sangkum: 인민사회주의공동체)을 결성하여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캄보디아왕국의 초대 수상이 되었다. 안으로는 우파 공화주의자와 좌파 공산당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취했던 그는 초기 비동맹주의의 추진자 중 하나였다. 1955년 반동에서 열린 제1회 AA 수뇌회의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던 그는 아시아 공산주의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도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좌파의 슬로건을 선택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캄보디아의 안정기를 유지했다.²³⁾ 1956년 필리핀 방문 중 시하누크는 공개적으로 반공 성향의 SEATO(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가입을 거부한 반면 중국과는 공식적으로 우호관계를 수립했으며, 중국이 비공산 국가에 주는 첫 원조(2천 2

19) Pheakdey Heng, *ibid.*, p. 58; 陳世倫, 「“21世紀海上絲綢之路”倡議下的中柬關係 - 對外援助關係下的風險分析」『南洋問題研究』168期, 2016, 93쪽; 2002년 주룽지 총리는 캄보디아의 차관(2억 달러)을 모두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캄보디아에 군사 원조를 세 배로 늘였다. 2004년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투자가 해외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다고 말했다. John F. Copper, *op. cit.*, p. 20.

20) Paul Mark, “China’s Cambodia Strategy,” *Parameters*, Autumn 2000, p. 95.

21) Pheakdey Heng, *op. cit.*, p. 62. 훈센은 2019년 1월 베이징 순방에서 시진핑으로부터 향후 3년간 8억 달러의 원조를 다시 약속받았다. “Cambodian leader Hun Sen, in Beijing, says China pledges \$800m in aid,” *The Straittimes*, Jan 22, 2019. 참고로 한국은 캄보디아의 두번째 큰 투자국이다.

22) “China’s Investment in Cambodian Infrastructure Totals US\$2 Billion,” *HKDC*, 24 August 2018.

23) 야프 반 히네겐/김정태 역, 『인도차이나 현대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갈등』(서울: 여래, 1985), 57쪽.

백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²⁴⁾ 그는 저우 언라이(周恩來)의 평생의 동지였고 마오쩌둥(毛澤東)과 우애를 유지했다. 1960년대 좌우파간의 권력싸움이 치열했던 시기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 당내 우파들과 관계가 좋았다. 1970년 론롤의 쿠데타로 권좌에서 쫓겨났을 때, 그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중국이었다. 중국의 중재 속에 시하누크와 캄보디아 공산당의 연정체제인 GRUNK(Royal Government of the National Union of Kampuche, 캄부차민족통일왕정)가 영빈관인 디아오타이에서 결성되었고, 중국은 1970년에서 1975년까지 GRUNK에 연간 2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여우이호텔(友誼賓館)에 숙소 및 사무공간을 제공했다.²⁵⁾

이처럼 캄보디아 정치사에서 시하누크의 상징성은 중국과의 평생의 연대에 있었다. 그러나 시하누크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인도차이나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좌파 쪽으로 기울긴 했지만,²⁶⁾ 그가 중립주의 노선에서 이탈한 것은 냉전 시기 열전의 한가운데 놓인 캄보디아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시하누크의 이 같은 중립적 성향이야말로 중국의 인도차이나 전략에 부합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부터 인도차이나 공산당에 아낌없는 원조를 했지만 베트남 노동당이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중소갈등이 정점에 달한 1970년대 초 베트남이 소련 편에 서게 되자, 중국에게 캄보디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소련의 위협과 아시아 사회주의의 진영 내 고립에 대한 타개책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중국에게 두 진영의 범퍼로서 캄보디아의 중립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1973년 키신저와의 대화에서 저우 언라이가, 캄보디아를 완전히 적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시하누크를 국가 수장으로 복귀시키도록 권고했던 것²⁷⁾도 이런 맥락이었다. 이렇게 보건대, 시하누크와 중국의 우정은 냉전시대 비동맹주의가 좌초될 운명을 반영하는 것이자, ‘삼개세계론’으로 대표되는 중국 제3세계 정책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준다.

현재 시하누크빌에 가공할 규모로 밀려드는 중국의 물류(物流)와 인류(人流)는 역사의 대자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냉전 시기에도 이곳은 중국의 원조 물자가 들어오는 주요 통로였기 때문이다. 시하누크빌은 2차 인도차이나전쟁(1955-1975) 당시 중국이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베트콩’)으로 보내는 원조물자가 하역되는 핵심 통로 중 하나였다.²⁸⁾ 또한, 1965년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시하누크는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캄보디아

24) Ben Kiernan, *How Pol Pot Came to Power: Colonialism,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Cambodia, 1930-1975* (Second Edi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2004), p. 170.

25) Andrew Mertha, op. cit., pp.2-3. 1960-70년대 중국에서 좌우파 간 권력싸움이 치열했던 시기 폴 포트가 사인방의 장 춘차오(張春橋)를 비롯한 당내 좌파의 지원을 받은 데 반해, 시하누크는 류샤오치(劉少奇), 덩샤오핑(鄧小平) 등 당내 우파들과 관계가 좋았다.

26) GRUNK 결성 당시 원래 시하누크는 크메르 루즈와의 연합을 원치 않았다. 그는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연합을 통해 반미국제연대를 형성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저우 언라이는 먼저 캄보디아 공산당 내부의 연합부터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중국의 오랜 중재를 통해 마침내 시하누크가 크메르 루즈와의 연합에 승낙했다. Sophi Diamant Richardson, “China, Cambodia and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Principle and Foreign Policy,” Doctoral Dissertation to the University of Virginia, pp. 108-113.

27) Nayan Chanda, *Brother Enemy: The War After the War: A History of Indochina Since the Fall of Saig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6), p. 40. Richardson, p. 124에서 재인용.

28) Andrew Mertha, *Brothers in Arms: Chinese Aid to the Khmer Rouge, 1975-1979*,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p.98. 베트남과 미국이 벌인 2차 인도차이나전쟁은

영토 내 영구 기지를 세우도록 허락했으며, 캄퐁 솜 항구를 통해 무기를 남베트남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²⁹⁾ 1970년 론롤(Lon Nol)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 정권을 세웠을 때에도 중국과 북베트남은 캄보디아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계속해서 캄퐁 솜을 남베트남으로의 보급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³⁰⁾

크메르 루즈가 집권한 캄푸차민주국(Democratic Kampuchea: 1975-1979) 시기 시하누크빌은 정유시설 수리를 위한 중국 기술고문들이 대거 입항함으로써 중국의 캄보디아 원조의 또 다른 장으로 기입된다. 시하누크빌의 정유시설은 1968년 프랑스 정유회사 엘프아키텐(Elf Aquitaine)과의 합작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1970년 미국을 등에 업은 론롤의 쿠데타로 크메르공화국(Khmer Republic, 1970-1975)이 세워진 후 시하누크빌의 정유공장 시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공산당의 주 타겟이 되면서 개발이 중단되었다. 1975년 8월과 12월, 중국과 폴 포트 정권 사이에 캄퐁 솜의 정유시설 정비를 포함한 경제협정이 조인되었다. 1976년 9월 중국의 기술 시찰단이 캄퐁 솜으로 파견되었고 1980년까지 수리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 간수성의 란저우와 위먼으로 각각 84명과 22명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기술훈련을 위해 파견되었고, 중국에서는 450명의 기술전문가와 관리자, 노동자들이 캄퐁 솜으로 파견되었다. 애초에 캄퐁 솜의 정유공장은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원유를 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그것을 중국 다칭(大慶)의 원유를 정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정비 작업의 주된 방향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보유한 이 정제 기술도 쿠바를 통해 습득한 것이라 하니,³¹⁾ 캄퐁 솜의 정유시설은 냉전시기 사회주의 기술원조의 전형적인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1980년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 캄퐁 솜의 정유시설 정비는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앤드루 마사는 이 두 사례가 폴 포트 정권에 대한 중국의 원조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폴 포트 정권의 잦은 숙청과 지식인에 대한 박해 탓에 기술자와 숙련공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더 근원적인 원인은 중국의 권위적이고 계통성이 결여된 행정체제로 인해 캄보디아 원조를 장악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것이다.³²⁾ 그에 따르면, 중국은 크랑 립과 캄퐁 솜의 원조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폴 포트 정권을 좀처럼 장악하지 못하고 시종 끌려다녔다. 그의 의문은 “도대체 왜 중국처럼 힘이 센 나라가 저보다 훨씬 약하고 대놓고 의존하려 드는 피원조국에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가”이다.³³⁾ 당시 캄퐁 솜에 파견된 중국 기술자들의 기억과 사적인 문서에 대한 세밀한 분석 끝에 마사가 내린 결론은 중국과 폴 포트 정부 사이에는 어떤 ‘연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북베트남의 월맹과 민족해방전선의 연합군이 미국이 지원하는 디엠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베트남의 승리로 종결된다(1975년). 그런데 이 승리는 중국과 소련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중국은 2차 인도차이나전쟁에서 한국전쟁에 투여한 원조 비용의 두배가 넘는 100억 달러를 투여했으며 1970년대에 이르면 원조액은 200억 달러에 달했다 楊奎松, 「毛澤東의冷戰觀」 <https://m.sohu.com/n/383932643>. 검색일 2019.3.15.; Thomas L Ahern, Jr., “Good Questions Wrong Answers: CIA's Estimates CIA's Estimates of Arms Traffic through Sihanoukville, Cambodia during the Vietnam War,” An Intelligent Monograph,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Retrieved May 7, 2015.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284/4-GOOD_QUESTIONS_WRONG_ANSWERS.pdf. 검색일 2020.5.28.).

29) 필립 쇼트/이혜선 옮김, 『폴 포트 평전』, 실천문화사, 2004, 300-301쪽.

30) 필립 쇼트, 같은 책, 373-374쪽.

31) Andrew Mertha, op. cit., p. 101.

32) Andrew Mertha, op.cit., p. 136

33) Andrew Mertha, op.cit, p. 3.

발견한 것은 파견 기술자들이 고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 작업에 필요한 자재가 배급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작업의 비효율성과 역량 결여에 대한 좌절들 뿐이었다.³⁴⁾ 더 나아가 마사는 이러한 오늘날 공격적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해외 원조(투자)에서도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계통의 결핍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로 인해 원조국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또 위기관리에 취약한 불안한 측면을 내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⁵⁾

그러나 폴 포트 시대 실패로 끝났던 캄퐁 솜의 정유공장은 지금 ‘해상실크로드’의 지정학적 전략 속에 다시 재개되고 있다. 2017년 5월, 중국 기업 선저우창청(神州長城)이 맡은 시하누크 정유공장의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연간 5백만 톤의 정유를 생산할 이 시설에는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6.7억 달러의 차관이 투여되었다.³⁶⁾ 마사의 비판은 캄퐁 솜의 정유공장의 실패가 “시하누크빌의 캄보디아 최초의 정유공장”으로 귀환하는 역사의 섬뜩한 지속을 설명하기엔 어딘가 부족하다. 그의 말처럼, 냉전시대 중국이 주창했던 ‘제3세계 연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냉전시대의 원조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4. 중국의 제3세계 연대와 아시아 냉전의 역설: 중국은 왜 크메르 루즈를 지원했나

1955년 역사적인 반동회의로 시작하여 아시아 비동맹주의의 정신적 유산을 함께 산생시켰던 중국이 크메르 루즈라는 기형아의 탄생의 방조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는 미소간 힘의 균형이라는 냉전구조 속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아시아 열전의 파국의 역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중국과 캄보디아의 밀월관계보다 더 역설적인 것은 없다. 1988년의 어느 글에서 “중국은 캄보디아의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했던 캄보디아 수상 훈센은 현재 아세안에서 중국에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다.³⁷⁾ 크메르 루즈의 부역자였다 베트남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훈센이, 지금은 중국과 베트남의 미묘한 긴장관계 사이에서 중국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1960년대 중국과 함께 아시아 비동맹주의의 정신적 유산을 함께 만들었던 시하누크의 이름이 킬링필드라는 핏빛 굴절을 거친 훈센 정권에 의해, 중국이 구축하는 지정학적 지도 위에 ‘시하누크빌경제특구’로 되돌아오는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는 ‘일대일로’의 지정학/지정학적 지도 아래에 깊이 묻힌 냉전의 지도를 어떻게 다시 복원하여 현재적으로 해독하는가라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

(*아직 작성 중인 초고이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4) Andrew Mertha, op.cit., pp. 114-116.

35) Andrew Mertha, op.cit., p. 141.

36) “Cambodia’s First Oil Refinery Breaks Ground in Preah Sihanouk,” *The Cambodia Daily*, May 5, 2017.

37) Paul Marks, op. cit., p. 93.